

광주학생들, 올해도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역량 키운다

광주시교육청, 세계시민의식 함양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사업 추진
독일·몽골 등 15개국서 국제교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올해도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시교육청에서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은 독일, 몽골 등 15개국에서 민주·인권 평화통일, 문학, 과학, 특성화고 현장학습, 생태전환 등 14개 주제로 진행된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320여 명이 참여해 세계 주요 학교, 대학, 기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또 전 세계 주요 명소에서 플래시몹 등을 통해 K-pop, K-dance, K-food 등 한국문화를 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시교육청은 폭넓은 참여를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정했다.

더불어 4월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에 참가한 학생들이 해외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를 운영한다. ‘동네 한 바퀴’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 2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급별로 대학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예술·체육, AI 등을 주제로 호남권 지역을 탐방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도 4월부터 시작된다. ‘팔도 한 바퀴’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주제를 정해 전국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학교 간 온라인·대면 국제교류, 한국어교육기반 온라인·대면 수업 교류, 유네스코 학교 수업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초·중·고교원을 중심으로 국제 수업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형 국제교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글로벌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프랑스 교육현장 연수

주한프랑스대사관 한불수교 140주년 교육프로젝트 선정 화제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주임 교수 노병호)가 최근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국어 교육문화 현장 탐방 연수 프로그램이 주한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2026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교육 프로젝트로 선정돼 화제다.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 등 2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와 클레르몽페랑, 리옹 등지에서 교육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재학생들은 프랑스 파리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선보였다. 국제 교육 현장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연수는 주한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양국 간 교육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호 문화적 교류 증진에 기여했으며, 교육 협력의 역동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불수교 140주년 교육프로젝트 공식 라벨을 부여받았다.

이번 연수에서는 프랑스 파리 아리솔 한글학교를 방문해 시행한 ‘한국어?한국문화 수업’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재학생들은 연수 전부터 수준별 학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한글학교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각 반의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며 수업 완성도를 높였다.

수업은 소나무반 1(한글때기), 2(한글완성), 3(한글활용), 4(심화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글활용반에서는 독서활동, 독서미니북꾸러미 만들기 등 한글이 포함된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으며, 심화반에서는 한국어와 연계된 놀이와 인성 수업을 중점으로 보드게임, 과학 실험 등 자연스럽게 문제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을 줬다.

방문단은 또 주프랑스문화원 세종학당, INALCO, 시테 대학을 방문하고 한글학교 수업을 참관하는 등 프랑스의 교육 환경과 문화 전반을 폭넓게 체험했다.

이번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학토제교육센터와 동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가 주관했으며, 동신대학교 단독 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동신대 노병호 국제한국어학과장(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주임교수)은 “재학생들이 프랑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어 교원으로서 자부심을 키웠으며, 특히 주한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한불 수교 140주년 교육 프로젝트로 공식 라벨을 받아 더욱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어 교원 양성 명문 학교로서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5학년도 나도 작가 프로젝트 ‘제3회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나도 작가 프로젝트’ 80개교 운영

독서인문 교육...출판작품 전시회도

전남교육청이 독서인문 교육의 하나로 운영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나도 작가 프로젝트’ 내 실화에 힘쓰고 운영 학교를 기존 50개교에서 80개교로 늘린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사들의 운영사례를 확산하고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책 출판 글쓰기 교육 방법론과 출판 과정을 상세히 공유한다.

참여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나도작가 프로젝트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도 마련해 프로젝트 성과도 선보인다.

도 교육청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학생 책 출판 글쓰기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그동안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교사들의 운영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책 출판 글쓰기 교육 방법론과 출판 과정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연수 장소인 전남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에서는 2025학년도 나도 작가 프로젝트 ‘제3회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도 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 1층 이음갤러리에서 13일까지 전시회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목포도서관에 작품집을 소장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시회 후에는 학생작품들을 지역 도서관에 소장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학생들의 사유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중국 유학생 유치 강화 강서성 주요 교육기관과 협력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중국 강서성 장수시에 위치한 장수직업기술학교와 황봉현 제3중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진 총장은 김지혁 학생지원처장, 최지수 국제협력부처장을 대동해 이날 장수직업기술학교를 방문, 정지파 당위서기 겸 교장, 황합 장수시대권도협회 회장과 양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전공 연계 진학, 학생 교류 확대,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직업기술학교는 2015년 설립된 공립 직업계고등학교로, 재학생 약 2,700명과 교직원 140여 명이 재직 중이며 산업로봇, 자동차 정비, 관광서비스, 미용, 컴퓨터응용 등 25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업과 협력해 공동 실습기지를 구축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장 일행은 이어 강서성 상라오시에 위치한 황봉현 제3중학교를 방문, 왕천명 당위서기와 양 교장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중국 고등학생의 한국 대학 진학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봉현 제3중학교는 2019년 설립된 공립 일반고등학교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시범학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지역사회통합학회, 연구윤리교육 진행

2026년도 총회...사업보고·정관논의

한국지역사회통합학회(회장 광주여대 이형하 교수)는 최근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총회 및 연구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총회에는 학회 회장단, 이사,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육전문가, 대학원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회 경과 보고, 학술지 출판 보고, 2026년 사업 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연구윤리교육은 학회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 연구윤리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심도있게 실시했다.

한국지역사회통합학회는 21세기 대표적인 화두인 시민, 지역사회, 국가 사이의 소통과 연결을 추구하는 통합 연구를 목표로 2024년 창립된 학회이다.

이형하 학회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및 이슈들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 통합 관련 다양한 측면의 학술적 연구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